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29호

분홍색 테이핑한 선수를.. 미리 합격자로 정해둔 학생 선발 시도

대학 배구부 체육특기생 비리.. 전 감독 코치 불구속 송치

변근아 뉴시스 기자

축구협회에 대한 기초 조사 진행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 전환 결정...

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 감사 확정... 스포츠 윤리센터도 조사 착수

김기범 KBS 기자

전문가들 “강한 훈련만 강조하는 구시대적인 인식 여전”

“군대보다 못한 최악의 인권문제가 축구계에 남아 있다”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

데일리스포츠한국

'폭력'으로 얼룩진 스포츠계, '사랑의 매'를 들던 시절은 지났다!

정진영 스포츠한국 기자

[언론인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편견을 걷어내고 올림픽을 응원하자 [이희용의 세계시민]

이데일리 포럼사무국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대학 배구부 체육특기생 비리... 전 감독 코치 불구속 송치

합격자로 미리 정해둔 학생들에게 특정 표식을 하고 대학교 배구 체육특기생 선발 전형에 참석하도록 한 감독과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업무방해 혐의로 전 경기대 배구부 감독 A씨와 코치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대 배구 체육특기생 실기전형 과정에서 합격자로 미리 선정해 둔 학생 11명에게 홍색 테이프를 손목에 테이핑하게 한 뒤 실기시험을 보도록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학생들은 테이핑을 하고 외부 전문가 등 면접관 3명이 참여한 실기전형을 치렀고, 합격자 7명 전원이 이들 중에서 선발됐다. 나머지 4명은 예비합격자 1~4번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면접관 일부에게 테이핑 표식에 대해 언급하며 학생 선발을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제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대학 측은 합격자와 예비합격자 전원에게 합격 취소 통보를 했다.

또 A씨와 B씨, 면접관 3명 등 배구부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조사 결과 면접관 3명의 범죄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면접관 중 1명은 A씨의 부탁을 거절했으며, 나머지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문체부 감사 확정... 스포츠 윤리센터도 조사 착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체육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19일 "협회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축구협회의 재정 및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감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특히, 시대 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축구협회의 대표팀 감독 선임 정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축구협회 정관에 있는 국가대표 규정 제12조 2항은 '협회는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그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체부는 약 1주일 기초 조사에 들어간 뒤, 축구협회를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공식 감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보통 감사 기간은 약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체육계 인권 보호와 비리 조사를 맡고 있는 기구인 스포츠 윤리센터는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윤리센터는 조사 결과 잘못이 발견되면 문체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군대보다 못한 최악의 인권문제가 축구계에 남아 있다”

K리그2 김포FC의 유소년축구단 소속 선수이던 A군(당시 16세)이 2022년 4월 27일 새벽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카카오톡에 남긴 메시지다. A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축구선수라는 꿈을 향한 그의 도전은 7년 만에 사그라졌다. A군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코치들 이름을 나열한 뒤 “솔직히 오늘 걸려서 내일이 두렵다”, “OO의 차별과 OO의 폭력, 언어폭력” 등의 말을 썼다.

A군의 죽음 뒤 유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유독 손씨 측을 두둔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손씨는 입장문을 통해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에선 ‘축구선수가 되려면 강한 멘탈(정신력)이 필요하다’, ‘좋은 말로만 해서 제대로 교육이 되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지난 7월 12일 기자와 만난 A군의 아버지 B씨(50)는 “미성년자에게 언어폭력을 하는 게 스포츠가 맞느냐, 이런 스포츠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스포츠가 아직도 구시대적 담론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유소년 선수 사망 2년 2개월, 수사는 진행 중

스포츠 폭력 문제는 2018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고, 이듬해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고발하면서 크게 불거졌다. 2020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최숙현 선수가 감독 등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했다. 이 스포츠윤리센터가 김포FC 건을 조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코치가 평소 유소년 선수들에게 “대가리에 총 맞았냐”, “XX 이건 아니지” 등의 욕설을 했다고 확인했다. 선수들이 규칙을 어길 경우 머리를 자르게 하고, 운동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물병을 던지는 등의 폭력이 있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법적 책임을 따지는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A군이 사망한 지 2년 2개월이 넘었지만 경찰은 아직 아동학대 혐의 수사를 끝내지 못했다. A군의 아버지가 코치들과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중지됐다. 수사·재판에선 폭력이 있었는지부터 폭력 때문에 A군이 사망했는지까지 원점에서 재공방이 이뤄진다.

코치들은 유소년 선수들과 논의해 규칙, 벌칙을 정했고 A군이 규칙을 어겨 주의를 시켰을 뿐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칙과 벌칙은 휴대전화 공기계 사용이 적발되면 머리 자르기와 퇴출, 생활규칙을 어기면 경기와 훈련 불가, 식사시간을 어기면 휴대전화 압수 등이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유소년 선수들이 이런 규칙과 벌칙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인권침해적이라며 A군이 벌칙 수행과 축구선수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B씨는 “아이들의 경기 출전과 진로에 대한 권한을 가진 지도자가 욕을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이들 인생 목표를 볼모로 하는 아동학대”라며 “군대보다 못한 최악의 인권문제가 축구계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 폭력은 훈련에 참여할지 여부부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 경기에 출전할지 등을 결정하는 지도자와 그 지도자 말을 수용해야 하는 미성년자 선수의 권력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취지다. 그런 의미에서 B씨는 SON축구아카데미를 옹호하는 여론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지난 7월 4일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씨의 아동학대 논란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창길 기자

B씨의 말이다. “아이들에게 축구선수는 꿈이고 로망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꿈을 갖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아이가 훈련에 참여하고 경기를 뛰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지도자가 갖고 있어요. 팀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도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너 게임 나와’, ‘너 수비해’, ‘너 빨리 뛰어야지’, ‘왜 저기에 패스 안 해줘’ 코치가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실수하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욕을 하면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누가 이 아이한테 가서 ‘괜찮아?’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돼야지’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봅니다. 경쟁 때문에도 그렇죠. 부모들은 내 아이가 못 뛰는 것을 보면 화가 나니까 코치·감독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요즘 아이들이 나약하다, 축구는 욕을 들어가면서 강압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축구를 가르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19일에서야 ‘윤리 규정’과 ‘축구인 인권보호 규정’을 만들었다. 윤리 규정 제15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3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괴롭힘 또는 다른 자의 존엄을 고립시키거나 훼손하기 위한 적대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다만 SON축구아카데미와 같이 학교 바깥에서 이뤄진 교육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포츠계의 낡은 인식, 해병대 훈련도

전문가들은 ‘강한 훈련만이 메달을 만든다’는 낡은 인식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포츠에 대한 과학적 접근보다는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선수의 강한 정신력이 성과를 만든다는 교육방식이 스포츠 폭력을 청산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말 대한체육회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 대비해 정신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받게 해 논란이 일었다.

정윤수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스포츠평론가)는 “강인한 체력, 굳센 마음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담론은 1990년대 이후엔 버려진 담론”이라며 “(미국 등에선) 합리적·과학적·체계적으로 성장 과정과 심리를 분석하고, 스포츠 교육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이미 30년이 됐는데 한국은 30년 전 상황에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등의 사후약방문식 대응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어느 고약한 지도자 한 명이 나빠서가 아니라 폭력이 구조화돼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 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끔찍한 사건이 났을 때야 사후적으로 대책을 만들었다”며 “과학적 시스템 적용, 폐쇄된 생태계의 확장, 사건사고와 연관된 지도자는 스포츠계에 발을 못 딛도록 엄벌에 처한다 등의 정책을 제대로 폈다면 이런 사건(SON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논란)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나왔더라도 (여론이) ‘아직도 아이를 때리냐’는 반응이었을 텐데 지금은 뒤섞여 있다”고 했다.

허정훈 중앙대 체육대학 교수(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목표를 설정하고, 경쟁 속에서 선수가 자신감을 높이고, 불안을 조절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지도자가 가혹하게 욕을 하고 때려야 선수가 단련된다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허 교수는 “일부 국가에서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어른들의 의무를 규정한 스포츠 권리장전도 있다”며 “제2, 제3의 김포FC 사건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일부 코치의 자격 박탈이나 처벌 문제로 축소되지 않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를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폭력'으로 얼룩진 스포츠계, '사랑의 매'를 들던 시절은 지났다!



축구와 야구, 배구 등 종목을 막론한 스포츠 계열이 폭력으로 얼룩져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6일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손 감독과 코치진들이 아동들에게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를 가격해 상처를 입히는 등 폭력과 폭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이 같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이슈로 떠올랐다.

손 감독 등은 해명문을 통해 "코치와 선수 간에 선착순 달리기에 늦으면 한 대 맞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무색하게 지난 6일 공개된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SON축구아카데미 경기 영상엔 소속 선수가 부진하자 "야 이 XX야" "야 너는 병XX야? 머릿수 채우려고 들어갔냐?" "하기 싫으면 나와 이 XX야" "야 이 XX야 비실비실할 거면 나와"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내뱉는 코치진의 언행이 담겨있다.

이에 SON축구아카데미 측은 "정식 대회 첫 참가라 선수들이 과도하게 긴장했고, 감독님과 코치진이 매일 강조했던 사항이 실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함이 큰 상황이었다"며 "과격하 표현은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긴박한 상황에 신속하게 지시 사항을 전달하다 보니 표현이 정제되지 않았다. 결코 특정 아동을 지칭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합에 참여한 선수들이 손웅정 감독과 코치진의 의도와는 다르게 경기를 풀어나가며 답답한 상황을 연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행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된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과거에 비해 국내 스포츠 인권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스포츠 분야에서 지도자에 의한 인권 침해와 폭력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철인 3종경기 선수였던 최숙현 선수가 감독과 팀 닥터의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것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개소했지만 '엘리트 체육'이라는 명목하에 프로 스포츠 이외 학교 밖 아카데미에서도 여전히 나이 어린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의 일부 시인과 증거 영상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것은 없었다"며 수사·사법 기관에 피의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스포츠에서 인권 침해와 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또한, 현 상황에서 '사랑의 매'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닌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임을 지도자와 학부모들 스스로 인지해야 할 때다.

그들이 자랐을 때와는 환경이나 인식이 많이 달라진 만큼, 이제는 훈육의 방법도 현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편견을 걷어내고 올림픽을 응원하자



이희용의
세계시민

1896년 4월 6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개막했다. 고대 올림픽이 중단된 지 1503년 만이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을 재현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쿠베르탱 남작의 꿈이 실현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인류 평화의 제전'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근대 올림픽은 반의 반쪽짜리 대회로 출발했다. 여성은 출전할 수 없었던 데다 241명 선수는 백인 일색이었다. 14개 참가국 가운데 비유럽 국가는 미국과 칠레뿐이었다. 4년 뒤 파리대회에서 여성 출전이 허용되고 영국 식민지 인도가 처음 참가했다. 영국과 인도 혼혈 선수인 노먼 프리처드는 육상 200m와 200m 허들에서 은메달 두 개를 따내 최초의 유색인종 입상자로 기록됐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대회에서는 육상 200m와 400m 허들에 출전한 미국의 조지 포지가 흑인 최초로 동메달을 땀다. 미국체육회는 북아메리카 수족,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족, 아프리카 피그미족, 필리핀 모로스족, 일본 아이누족에게 장대오르거나 진흙탕싸움 등의 경기를 벌이게 해 관중의 구경거리로 전락시켰다.

1908년 런던대회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처음 출전해 금메달을 땀다. 일본은 1912년 스톡홀름대회부터 참가해 1920년 앤트워프대회에서 처음 입상했다. 독일의 히틀러 총통은 1936년 베를린대회를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하는 무대로 삼으려 했다. 유대인의 출전을 막으려다 각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히틀러의 기대대로 독일은 메달 순위에서 미국을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서 일장기를 달고 출전한 식민지 청년 손기정과 남승룡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쥐고, 미국의 흑인 선수 제시 오언스가 육상 4관왕(100m·200m·400m계주·멀리뛰기) 신화를 이뤄내 김을 빼놓았다. 히틀러는 흑인 메달리스트와 악수하지 않으려고 경기장을 일찍 떠났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흑백 차별은 그 뒤로도 올림픽을 뜨겁게 달군 쟁점이었다. 아파르트헤이트(흑백 분리의 인종차별정책)를 펼치던 남아공은 1964년 도쿄대회부터 1988년 서울대회까지 참가를 금지당했다. 멕시코대회가 열린 1968년은 흑인 지도자 마틴 루서 킹이 피살된 해였다. 육상 200m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미국 흑인 선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시상대에서 검은 장갑을 낀 한쪽 손을 번쩍 치켜들어 침묵시위를 벌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정신을 위반했다며 곧바로 선수촌에서 쫓아냈고 미국 육상연맹도 이들을 제명했다. 호주의 백인 은메달리스트 피터 노먼도 인권운동을 상징하는 배지를 함께 가슴에 달고 공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했다.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 선수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 2000년 시드니대회는 탈레반 정권의 여성 억압정책을 문제 삼아 아프가니스탄의 참가를 금지했다. 이 대회에서 호주 원주민(애보리진) 캐시 프리먼은 여자 육상 400m에서 우승한 뒤 애보리진 깃발을 들고 경기장을 돌며 원주민 차별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제 올림픽에서는 예전과 같은 인종·민족·여성 차별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 미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올림픽을 국력 과시의 장으로 여기거나 메달 순위를 민족의 우수성과 연관짓는 태도도 여전하다. "승리보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로 인류 평화를 실현한다"는 쿠베르탱의 이상은 멀기만 하다.

이들 뒤 개막할 파리올림픽의 대한민국 대표단에는 귀화 선수와 다문화가정 선수도 포함돼 있다. 중국에서 귀화한 전지희와 이은혜(이상 여자탁구),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허미미(여자유도), 탁구 스타 안재형·자오즈민 부부의 아들 안병훈(골프)이다. 이들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이고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다.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는 스포츠대회에서 자국 선수를 응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과도한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는 곤란하다. 갈등과 혐오를 부르기 때문이다. 편견을 걷어내고 차분한 마음으로 올림픽 대표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멋진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자.

주간 스포츠 소식

두산건설, 천안시 체육발전을 위한 기부금 2000만원 전달

<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5486835>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제주어울림생활체육대회 '성황'

https://www.nocutnews.co.kr/news/618152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721041204

부천시체육회장, '팀장 직원 성추행' 사과... "분리 조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7_0002814440

인천시교육청, 학교 체육교육의 패러다임 바꾼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8_0002817252

국민체육진흥공단, 아동양육시설에 스포츠용품 기부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8137200007?input=1195m>

대전 중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본격... 연내 출범 목표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721010006495>

전북체육회, 체육 영재 50명 선발...선수 등록시 훈련비 등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240718108700055?input=1195m>

동작구, 다둥이 가정에 체육시설 주차료 50% 감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8_0002815911

[올림픽] '봉주르, 파리!'...대한민국 선수단 본단, 결전지 입성(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0047751007?input=1195m>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